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 마무리 선관위원장 해임, 공약무단취득 발생

〈외국어대학〉

〈노하우 선본〉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달 28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개표를 마지막으로 양 캠퍼스 제 52대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서울캠을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기호 2번 무빙 선거운동본부(선본) 최 인성(생물학 2016) 정후보와 정경원(회계세무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고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이끌어 갈 제 52대 총학 선거에서는 기호 2번 WORKHUMAN(워쿠맨) 선본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정후보와 이소영(체육학 2016) 부후보가 당선됐다.

국제캠 총학 선거 투표율은 64.8%였고 기호 2번 워쿠맨 선본은 58.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 52대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예정된 개표 일이었던 11월 29일에 투표율이 48.0%로 50%를 넘지 못해 투표가 하루 연장됐다. 그리고 다음 날 51.1%의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호 2번 무빙 선본이 43.8%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양 캠퍼스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자 선출로 모든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제캠에서는 선거 기간 중 외국어대학(외대) 선거관리위원회 최지현(프랑스어학 2015) 위원장이 해임됐고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0일 국제캠에서 진행된 단과대학 및 특별대표기구 개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위원장은 외대 최 위원장의 해임을 발표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선거준비기간 중 특정 선본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거

에 개입 및 유착 관계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가 왔다”며 “중선관위로서 정치적·이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원장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캠에서는 선본 간 공약 무단 취득 사건이 일어났다. 정경대학 문형일(정치외교학 2015) 회장은 제 52대 총학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 선본을 꾸렸으나 정경대학 회장 사퇴 과정에 차오가 있어 출마가 불발됐다. 이후 다음 선본에 있던 일부 선본원이 ‘Know_How’(노하우) 선본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 선본의 참모가 “노하우 선본으로 올 때 다음 선본의 정책을 갖고 올 수 있니”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 결과 다음 선본의 5대 공약과 그 외 공약집 관련 파일이 노하우 참모진 대화방에 업로드 됐다.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노하우 선본 강연정(경영학 2017) 정후보와 전준필(경영학 2015) 부후보는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와 징벌 관련 세칙이 중선관위에 없기 때문에 위 사항은 의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노하우 선본 징계 논의가 지난달 22일 제3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노하우 선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 세칙, 준거가 없어 의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본 사안에 대해 “확인 및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선본과 노하우 선본에 보낸 확인 질문 관련 답변 게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실효성 있는 수칙과 안전 인식 필요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 최근 총무관리처에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우휘 팀장은 “최소한의 도로교통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전수칙 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용객 급증에 따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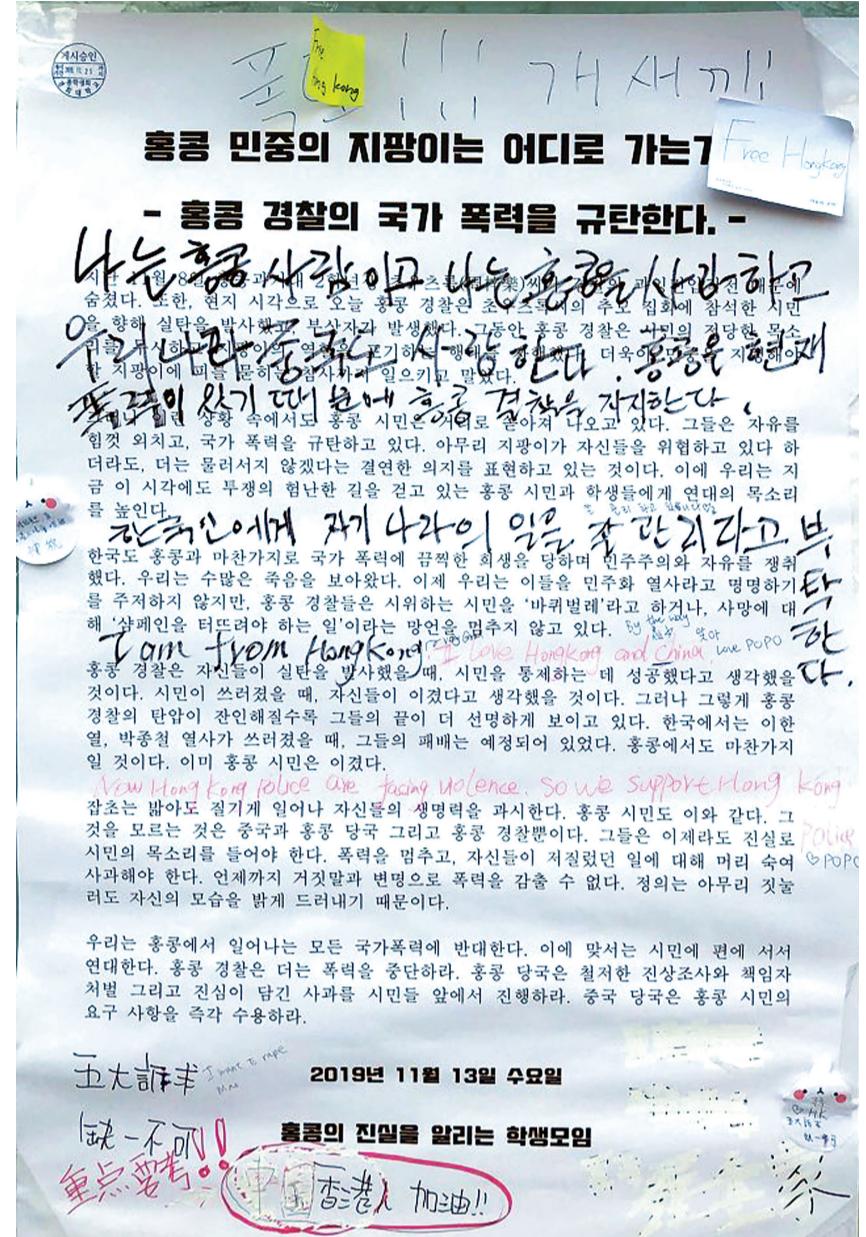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이다. 총무관리처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학교에서도 무단횡단, 역주행,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인해 교내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수칙은 제시됐지만 이를 강제할 관계 법령은 없다. 대여업체 등에서 고지하는 수칙도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빌리티’ 관계자

는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칙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평소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박주영(국제학 2018) 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이 구비돼있지 않아 쓰지 않고 탄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이팀장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설이 마련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 위험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준수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홍콩 경찰의 국가 폭력을 규탄한다. -

우리는 11월 8일 홍콩과 세계 각지에서 함께 한 폭력 저지 운동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을 규탄한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연예인과 고기값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더욱 더 폭력을 저지른다. 저지방이 빠를 분위기에서 일으키고 말았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과 100개 국가에서 홍콩 시민은 차이로 돌아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험한 외치고, 국가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아무리 저지방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금이 시각에도 부정의 협한한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